

## 2 뉴스

# 마을버스 이용객 크게 감소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학교를 지나는 마을버스 이용객이 크게 감소했다.

동대문01과 02버스를 운영하는 우리운송에 따르면 회기역과 경희의료원을 연결하는 동대문01 버스의 승객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55% 감소했다. 우리학교가 1년 이상 비대면 수업 방식을 채택하며 마을버스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 이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동대문01 버스 기사 A 씨는 “코로나19 비대면 강의로 학생들이 전무한 상태로 교환학생 등 외국인 유학생도 감소하다 보니 승객이 코로나 전보다 반 이상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총 5대가 운영되던 동대문01 버스는 현재 4대로 감축 운행을 하고 있다.

회기역과 경희대 후문을 연결하는 동대문02 버스의 상황도 비슷하다. 우리운송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급감을 이유로 동대문구에 02번의 경희대 후문과 외대역 구간의 노선 단축을 신청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철회됐다. 우리운송 관계자는 “경희대 후문 일대 재개발로 승객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노선 1/3에 해당하는 구간을 단축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운행 구간이 줄면 배차 간격이 단축돼 승객의 대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로 우리학교와 회기역을 잇는 동대문01 버스 운행이 감축됐다.

(사진=김경민 기자)

수를 차지하는 경희대 학생도 편리해지고 회사도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와 구청에서 입김이 센 일부 주민의 의견만 반영하다 보니 정작 노선 단축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이전 동대문02 버스는 예비 차량을 포함해 총 5대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4대로 감축해 운행하고 있다. 우리운송 관계자는 “1, 2월에는 버스를 3대만 운행했으나 개강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하여 다시 4대를 운영 중”이라며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수의보다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어서 다시 3대 운행을 고려하고 있

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로 운영돼 시의 지원금을 보장받는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돼 지원이 제한적이다. 또 버스 요금이 900원으로 동결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의 감소는 마을버스 회사들에게 이중고로 작용한다. 우리운송은 “마을버스 요금이 동결된 지 6년이 지나 대중교통 요금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라며 “요금 동결에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수 감소가 더해져 어려움이 배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승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체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대문01 버스를 주 2회 정도 이

용한다고 밝힌 재학생 B씨는 “단축 운행은 거의 체감하지 못한다”며 “코로나19 이전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버스 탑승 전 대기 시간이 길었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며 대기 시간이 짧아져 감축 운행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을버스가 추가로 감축하여 운행한다면 이전보다 적은 버스에 더 많은 인원이 탑승해 코로나 19를 예방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2021학년도 2학기도 비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난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 ▶ 1면 ‘출입 통제’에서 이어짐

도보 출입은 본교 신분증이나 출입 허가증 소지자에 한해 출입을 허가한다. 차량은 할인권을 포함한 정기권, 본교 신분증, 발주서 소지자 및 납품 차량 등이 출입 가능하다.

학교의 출입 통제 조치가 한발 늦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통제 조치 이전, 교내에는 벚꽃을 즐기는 방문객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심동훈(경제학2020) 학생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우려해 대면 수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대학이 벚꽃 구경터로 전락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학교의 통제는 적절하지만 벚꽃 개화 시기 앞뒤 2주로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조치가 늦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서울캠 총무팀은 “캡스에서 외부인의 건물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며 “벚꽃이 만개하기 전부터 눈의 했지만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출입자들이 학내 구성원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벚꽃 개화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해 재유행의 위험성이 있다”며 “정부의 방침과 양 캠퍼스 코로나 대책 반 논의에 따라 통제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정정보도

※ 지난 1669호 3면에 게재된 〈학부 과정 유학생 지속 증가〉 기사 내용 중 2019년 파견 교환학생 수가 잘못 표기돼 바로잡습니다. 관련 부서인 국제교류처는 우리신문에 ‘1865명’으로 들어간 파견 교환학생 수는 교환학생, 학과 전공 연수, 현장실습 인원 등이 모두 포함된 숫자이며 실제 파견 교환학생 수는 ‘276명’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기사에 표기된 2019년 대비 2020년 교환학생 감소 비율 역시 95%가 아닌 약 57% 감소로 정정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2021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공고(국제)

2021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교직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교직이 설치된 학과에서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자

2. 신청기간 : 2021.04.12.(월) 09:00 ~ 04.16.(금) 17:00

3. 신청방법

1) 인포21에서 신청 : 수업/성적 → 교직 → 교직과정이수신청

– 신청화면에서 자기소개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하여야 함(첨부양식 참조)

2)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신청(필수)

① 적성 및 인성검사 일정

– 일 시 : 2021.04.19.(월), 16:00, 17:00, 18:00 중 택1

– 장 소 : 멀티미디어 교육관 203호

② 신청방법 : 교직팀 홈페이지(<http://education.knu.ac.kr>)에서 교직 인적성 검사 “시험신청”

– 시험일시, 단과대학, 학과, 학번, 성명 입력 후 저장

4. 선발절차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교직팀) → 면접 등 전형실시(학과)

– 면접일정은 해당 학과에서 별도 공지(관련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문의)

5. 선발인원 : 총 49명

|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2021. 04. 02.

대학	학부·학과명		표시과목	선발인원	대학	학부·학과명		표시과목	선발인원
공과대학	환경학및환경공학과	환경학전공	환경	3	예술·디자인 대학	연극영화학과	연극영화	3	
응용과학 대학	응용물리학과		물리	3		의류디자인학과	의상	3	
	응용수학과		수학	3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식물자원·조경	3	
	응용화학과		화학	3	체육대학	체육학과	체육	7	
외국어 대학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영미문화전공	영어	2		스페인어학과	스페인어	2	
	영미어문전공		영어	4		일본어학과	일본어	3	
	일본어전공		중국어	3		중국어학과		7	
	한국어전공					태권도학과	태권도	7	

6. 선발결과 : 2021.05.25.(화) 예정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학사)에 공지)

7. 유의사항 : 1) 교직이수예정자는 교직적성 및 인성, 성적, 면접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성적이 우수하여도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적성 검사 및 면접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2)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한 경우 자격이 자동 상실됨

8. 문의처 : (국제)교무처 교직팀 Tel. 031-201-3047